

Open-Ended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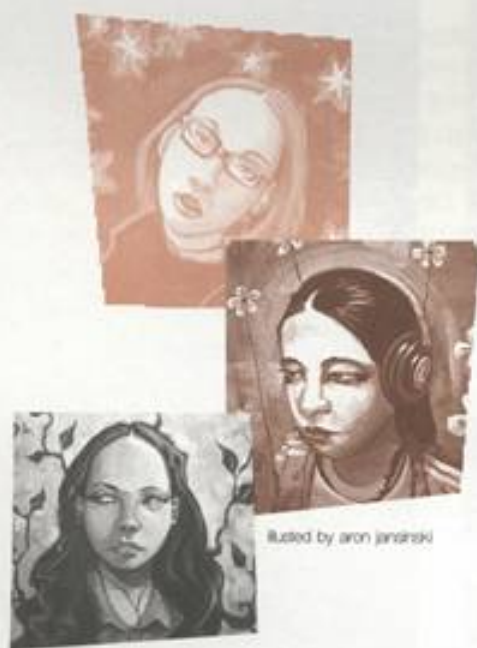
[óupən-éndid]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롭게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관찰 것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용어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학생회

<http://yonsei.ac.kr/~ysfem> empower@yonsei.ac.kr

Thank Goddess, I'm a Feminist!



Illustrated by aron janszki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나를 만든 것은 8할이 부정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싫었다. 여성이라는 것은 내가 남자 형제들뿐인 사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호 받아야 할 깍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뛰어다니기 어려운 치마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언젠가는 내 아버지에게서 다른 남성의 손으로 건네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가족 행사의 일정에서 제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는 아빠보다는, 언제나 시간도 많고 '하는 일도 없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은 언제나 금기로 둘러싸인 공간에 놓여 있었으며, 난 그 금기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가부장제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념에서 탈피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 청개구리가 되기를 선택했다. 이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면, 다른 쪽으로 부러나게 뛰었다. 운동도 했고, 치고 박고 싸움도 했고, 인형보다는 장난감 총에 더 관심을 보였다. 내가 그걸 정말로 하고 싶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반대 쪽으로만 가다보면 난 금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난 그 금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나를 키운 '8할의 부정'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나에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의하는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이 되고자하는 욕망을 품게 했을 뿐이었다. 난 여성이면서도 여성을 혐오하고 남성의 우월성을 뒤쫓으려는 분열적인 존재가 되어서야, 나의 청개구리 같은 방법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분열적인 자아를 지닌 나는 가부장제에 의해 갈아 먹힐 수밖에 없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는 억압받는 존재인 동시에 그 억압을 스스로 내재화하는 존재였다. 남성성의 우월함과 여성성의 열등함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자아 존중감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나는 분열적인 자아로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째서 우열을 따져야 하는 부분인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 짓는 경계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그 경계가 개인 여성과 남성의 삶에 얼마나 큰 억압을 가하고 있는지,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가부장제의 '자연스러운' 억압에 대해 '자연스럽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긍정하고 행복해하는 내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니, 끝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나를 억압하는 다양한 기제들은 아직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하고 일상적인 억압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우스운 사회에 문제제기하고, 그것들을 깨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의 해피 엔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이 없는 여정이었음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나의 고통에만 집중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여 가부장제의 억압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난 다시 가부장제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들을 발견할 것이고, 여성이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정체성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여성주의다.

난 여성으로 정체화한 자신 외에도, 다른 많은 자아들을 갖고 있다. 하나하나 이름 붙이기도 힘든, 130만개쯤 되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할 것이다. 그것들은 내 일상 어느 부분에서 억압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130만개의 '나'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고, 긍정하고, 억압에 대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계속해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난 이 상황이 행복하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긍정해나가는 나의 지난한 과거이자 현재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Thank Goddess, I'm a Feminist!

by_ 상어

130만개의 상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Contents

- 2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18대 총학생회 <여기, 열다> 1년 활동기
- 3 몸의 자유를 노래하다
학생회관 3층 왼쪽 복도 끝 분홍 문
- 4-5 [좌담]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
여성주의, 책으로 만나기
- 6 나, 성폭력의 기억과 마주하다
'꽃페미'에 관한 그들의 몇 가지 착각
- 7 당신의 결여를 노래하라
- 8 월경결석계 2007년 1학기 정식으로
시범운명을 시작합니다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1년 활동기

성폭력 없는 일상 만들기, 반성폭력 운동

《성평등 자치 규약》 개정

지난 2000년 제정한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이성애중심주의, 학벌권력/나이 권력 등 내용을 더 보완하여 개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개정이 되었지만, 신과대 학생들이 '이성애중심주의'의 조항을 반대하여, 신대에서는 그 조항이 빠진 채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신과대 학생회와 토론의 등의 논의 끝에 지난 9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신대 역사 이성애중심주의 조항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제 1회 반성폭력 문화제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지난 5월, 올해로 처음 열린 반성폭력 문화제에서는 피해자의 치유와 소통에 집중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와 영화, 연세 이 반 공동체 <Come Together>와 함께하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자보전,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는 학내의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성평등한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치단위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2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를 맞아 자치규약을 홍보하고 교양하는 모임을 진행했으며, 자치규약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제와 아가라가, 기타 학내 행사에서 자치규약을 중심으로 반성폭력에 대해 교양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부터는 교수 성폭력, 성소수자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 성폭력 사례 및 지원 내용을 담은 교양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교육권 되찾기 운동

여성 교육권 확보의 첫걸음, 《월경 공결제》 시범 운영 실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감춰져 왔거나 왜곡되게 전달되었던 월경의 경험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동시에 '여성 교육권'의 측면에서 월경통으로 인한 결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월경 공결제의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시범 운영의 방안을 결정하여 5월 중순부터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서 결석계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와 함께 교육부령의 요구안으로서 월경 공결제의 학제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10월 학교 측과의 협상 결과, 2007년 1학기부터 학사 포탈에서 공식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비상벨, 비상 전화 확충 요구

현재 학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과 비상 전화 확충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학생처를 통해 상남경영관 1곳, 신학대에서 이과대 가는 길 1곳, 상대 지하주차장 2곳, 무악학사 가는 길 1곳 등 총 5곳에 비상 전화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반성폭력 온라인 교육 요구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성폭력 온라인 교육의 실시를 17대 총여학생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학생처에서 주관하여 학사 포탈에서 반성폭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평가서에서 교수의 성평등한 수업 여부에 관한 평가 문항 추가를 요구하였고, 지난 학기 수업 평가서부터 이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일상으로부터 함께하는 연대 활동

여성 소모임 워크숍 <Girl Talk! 다들 보고 함께 바라다>

지난 2월 학내 여성 소모임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소모임을 꾸리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여성 소모임에서 할 수 있는 세미나 커리큘럼, 콘텐츠 등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숭실대 여성주의자모임, 관악 여성주의자 모임과 함께,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위를 3.8 여성의 날에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젠! 바꿔 벗어나기>라는 이름으로 대학 사회 반성폭력 운동과 그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는 올해로 3년째 여러 가지 반성폭력 이슈에 대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학 사회 안에서의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달빛 시위

올해 3년째로 열린 '달빛 되찾기 시위'에 공동준비위원회로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참여했습니다. <달빛 아래 여성들, 몸의 권리와 힘, 기쁨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위협과 그 공포를 재생산 하는 가부장제 사회를 폭로하고 고발하며 여성의 정당한 '밤길'의 권리를 되찾는 행사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연대 활동

방학 중에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 팀을 운영하고, 송탄과 동두천 등 주한 미군 부대 인근에 위치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대동제에서는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연대 주점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주의로 소통하고 재구성하는 일상

여성주의 새내기 OT <날개공작소>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대학 문화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막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과 여성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써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

면서 쌓아 온 기억과 고정관념 안에 있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담은 강연회와 영상, 여러 가지 소모임 프로그램, 여성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여성주의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주의 학교 <여성주의 내공쌓기>

지난 4월 여성의 몸, 성폭력, 성매매, 이성애중심주의, 군사주의 등을 주제로 여성주의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름 방학 중에는 탈식민주의, 에코 페미니즘, 여성주의 정신분석 등, 보다 심화된 주제로 후속 세미나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주의 강연회 및 영화 상영회



현재 연세대에 개설된 수업 중 여성학의 비중이 적은 학내 지형 속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쉽게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로 강

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군사주의가 젠더 문제와 맞물려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을 수 있었던 정화진 선생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5월에는 나는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 라는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또한 올해 많은 이슈가 되었던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강연회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들은 정의파다>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제 9회 여성제 <여성, 욕망에 입을 그리다>



지난 9월, 올해 아홉 번째로 열린 여성제는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글로,

그림으로, 소리로 풀어내어 학생회관 앞에서 전시회를 진행하였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연,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영화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진행하였던 워크숍 '오늘도 밝히는 하루'에서는,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던 여성의 자위에 대해 여자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주의 매체 <Open Ended> 발행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끝난 것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다시 시작되는... 여성주의 매체 <Open Ended>는 나, 일상, 그리고 세상을 여성주의를 통해 바라보고 '중심'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바꿀어보며, 이를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번 호까지 총 5번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 행사와 일상에 관한 소식을 포함하여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여성 노동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여성학 도서관 <페미니리> 운영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에 위치하고 있는 페미니리는 여성학 도서와 여러 여성단체들에서 발행한 간행본들이 모여 있는 생활 도서관입니다. 1년 동안 책 대여와 세미나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고를 확충하고 공간 대여를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지원

교내 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좌담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

참가한 사람 아무도, 아이서, 씬, 베이, 이상, 자몽, 초생, 이컬, 우주, 레이, 코알, 상어
정리한 사람 코알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편견

아무도 여성주의자로 살면서 피로해진 것이 많아진 거 같아.

모두들 맞아 맞아 (공감모드)

우주 최근에 나는 애인이랑 싸우면서 애인한테 여성주의자면 세상을 그렇게 좁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

레이 나도 얼마큼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보고 세상을 '그런 쪽'으로밖에 보지 않느냐고 말하더라.

아무도 난 여성주의가 단지 젠더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들은 여성주의를 젠더 문제, 성폭력 문제 쪽으로만 국한시키는 것 같아.

아이서 여성주의라는 것이 이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걸 전복화하는 것인데, 어쩌서 편협하다고 말하는 걸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지 않은 쪽'까지 보고 난 후에 전제를 뒤집고 얘기를 하는 거인데, **이컬**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말하는 거인데, 사회적으로 여성주의자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아이서 내 생각에 마초들이 여성주의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건, 강한 여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 강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네들은 여성주의자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아. 가끔 옛날 소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 저녀는 기가 세서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아무도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밝히는 게 커밍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조모임을 할 때 내가 젠더 문제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당황한 듯이 '아, 페미니스트예요?'라고 물어보는 경우처럼. 최근에 조모임을 하는데 나한테 이름을 적어달래서 김선명수라고 적어주니까, '아, 총여예요?'라고 물어보면서 양성쓰기를 하면 총여라는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구. '혐의'라니 내가 뭐 범죄자인가.

초생 나는 내가 여성주의자가 되고 나서 나를 무서워하는 남자애들이 생겼어. 1학년 남자애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그 누나가 과방에 있으면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기만하더라도 나를 창 들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아무도 내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별소리를 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다들 내 눈치를 보더라.

초생 내가 과방에 있을 때, 어떤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아~'라고 한다.

씬 내 경우엔 내가 남자라 그런지, 아무도 내가 페미니스트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더라구. 하루는 과방에서 애들이 마초적인 농담을 할 때, 그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기도는 그냥 어색해 하더라.

아이서 내가 처음에 여성주의를 접했을 때, 반에서 여성주의 모임 아니, 심지어 '여학생모임'을 만든다고만 했는데 마초들이 득달같이 들고 일어났었어. 그때 같이 모임을 준비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자인 언니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마초들한테 대응하는 게 주기가 생긴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엑!'하고 못 견뎌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그런 거. 그런 가부장적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지만, 갈수록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 같아. 그네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제는 누가 지랄을 하든 말든, 분노를 느끼던 시점이 자났어.

여성주의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

상어 수업 시간에 교수가 강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화를 하는 거야. 너무 열 받았는데, 그 때 내가 너무 피곤했거든. 근데 여성주의자로서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서 자괴감만 진득 느꼈어.

레이 나도 어떤 이상한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나는 연예인들 중에 한가인보단 한은정 같은 애들이 더 좋더라. 섹시하잖아~'라고 말하는 거야. 태클을 걸기에는 선생한테 원지 미안하기도 하고, 딴 친구들도 그 선생님을 '그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을 못하고 해서, 결국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수업이 끝났어. 강의실에서 나오면서 느끼는 허탈감이란 뭘.

코알 교수가 말한 별소리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 같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초생 이런 거 어때? 수업시간에 이상한 말하면 '교수님, 총여입니다!'라고 손들며 일어서는 거지.

아이서 '여성주의자가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 테지만...'이라고 말할 때는, '넌, 제가 여성주의자입니다!' 하고~.

코알 교수가 진짜 당황하겠네. ㅋㅋ.

우주 어떤 수업에서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교수가 우리가 단

지 여성을 주제로 했다는 이유로 우리 발표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하는 거야. 게다가 그 교수는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이러면서 자신의 나이 권력으로 우리를 무시하더라고. 대학 내에서 여성주의자로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특히나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관계 내에서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아이서 실제로 그렇게 나이를 가지고 경계를 지음으로써 그저 어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문제잖아.

초생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가부장제도 남성 연장자에 의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억압이지.

여성주의자가 되면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

초생 여성주의자가 되고 나서 자기 미래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

아이서 확 변했지.

우주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난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미래의 가족구성에 대한 생각은 확 바뀐 거 같아.

아이서 나도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전에는 혼자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싶어.

초생 내가 운동하겠다는 건 이전과 변함없지만, 여성주의자가 되면서 운동의 진로는 바뀌었어. 나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 운동을 할 거야.

코알 나는 여성주의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면서 내가 여성이라는 걸 긍정하게 되었어. 어렸을 때는 내가 여성이라는 게 싫었을 때도 있었거든.

초생 나는 내가 여성주의자라는 명함을 달고 있는데, 연애에서는 발판 다르지 않은 거 같아.

자몽 지난 애인이랑 연애를 할 때 나는 여성주의자였고 그는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남자애였지. 연날 어떻게 하면 더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 같아.

상어 나는 여성주의자가 되면서 성격이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하하.

자몽 그리고 난 얼마 전에 나의 사랑하는 17년 된 친구와 나 사이의 겉이 너무 크다를 걸 느꼈어. 어느 날 개가 다른 사람에게 별소리를 듣고 와서는 나한테 그것에 대한 불평만 하기에, 나는 그럼 항의를 해, 라고 말했다가 대판 싸웠지. 여성주의자로 살면서 대응방식이 달라졌어. 만약 내가 여성주의자가 아니었다면 나

도 개처럼 가만히 대처할 수 있겠지. **우주** 대응할 수 있겠지. 친구들이 '아, 그렇기 때 **아이서** 근데 그 그래서인지 내가 '왜' 대항을 못했지. 근데 자책할 말이지. 내가 행동 거잖아. 대항하 역시 좋지 않은 언 잘하면 되는 인 듯.

여성주의자의

아이서 지금의 종류의 연대감을 관계를 맺어나갈 이 너무나 소중한 거 같아.

초생 나는 그렇 안에서 그렇게 **베이** 여성주의에 게 이런 '제' 일찍이 '제'로 는 거지. 하지만 게 어떤 신뢰를

아이서 난 여성 신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가능

이컬 이전에는 지만 그렇게 행 나를 여성주의자 생겼어.

초생 여성주의적 은 것 같아. 해 해석할 수 있는

가는 거 같아.

이컬 맞으면 맞

아이서 난 '이' 설명해야 할지

갖고 싶어서 **상어** 내가 까르르

남성 관리자가

여성주의, 책으로 만나기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성주의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성주의자들은
"Thank Goddess, I'm a feminist!"라고
거창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
여성주의자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만큼 여성주의자의 일상은 피곤하다.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권력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서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여성주의자들의 달콤하고 치열한 일상. 여성주의자들 몇몇이
동그랗게 모여앉아 밤을 새하얗게 지새우며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있었을지도, 내가 제대로 상황에 따
라는 사실이 매우 기쁘
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같은 여성주
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문에 용기도 생기는 거 같고
게 부담이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
기 길을 가다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지 라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거 같아. 가해자들이 잘못된
해지기 위해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기 싸우기를 굳이 압박으로 느끼는 것
거 같아. 못했으면 못하는 거고 다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편한 길

사건이 있었어. 그때 한창 사건들을 가지고 싸움을 조
직하던 단계였는데, 나는 그 사건을 한 달 이후에 터
뜨렸어. 그러자 피해자들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터뜨렸더라면 더욱 힘이 되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시
더라고. 실제로 여성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여성주의적
인 감수성을 가진 분들은 많은데 그걸 몰아낼 언어가
부족한 거 같아.

초생 여성주의 활동가는 여성주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라기보다는 언어의 전도사인 거 같아. 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

아이서 난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고, 내가 이런 힘과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커다란 자원인 거 같아.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

초생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권력을 박
살내려는 것이다. 투쟁

베이 놀자고 모여서 이런 좌담을 하는 것이 여성주의
자로 사는 거지. 일상이랑 운동이 구분이 안 되지.

레이 일상이 투쟁이야.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배우가
"클래식을 듣고 그런 게 태고야 아니라, 일상이 투쟁
이라는 것을 아는 게 태고지"라고 말하는 거야. 완전
공감했지.

썸 가부장제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누가 권력을 가지려 하는가의 파워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고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면서
대안적인 힘을 갖는 것. 그 힘을 만드는 것이 여성주의
라고 생각해. 그런 힘을 느끼고 발현해 나가는 것.

아이서 난 붕괴시키기 위한 운동보다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도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 자신이 '망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

코알 내가 여성주의자로 살면서 좋았던 건, 내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된 거야. 성폭력의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한편으론 힘들었지만, 사
건을 기억하고 해석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

자용 여성주의란 나에게 매일매일 나를 깨우는 것이지.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 모든 여성주의자들에
게 동일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여성주의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감히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여성주의는 인생을 더욱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
겠는가. 아무튼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지
나도, 좌충우돌 여성주의자로 살고 있지 않을까.



**여성주의,
남자를 살린다**
권혁범 / 또 하나의 문화

남성 페미니스트가 펄스에 쓴 칼럼들을
모아낸 여성주의 입문서. 젠더와 관련한
사회현상과 이슈들을 어렵지 않은 언어
로 조곤조곤 풀어낸 책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 '역차별'에 대한 논란들에 대
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내고 있다. 특
히 페미니즘이 무엇이나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갖는 남자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에코페미니즘
마리아 미즈, 반다나 사바
/ 창비

에코페미니즘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서. 여성과 자연을 배제시키는 가부
장적인 세계관과 사회구조가 '근대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성억압
과 자연 파괴의 근본원인이라고 파악한
다. 그리고 개발, 신학, 환경과 여성의 빈
곤화 등의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
난 대안적인 삶의 모습 역시 모색하고
있다.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김은실, 변혜정 / 동녘

다양한 필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를 각
자의 시각으로 해석한 책이다. 여성의 연
애, 자위, 섹스와 임신, 비혼모, 성폭력
등의 경험을 여성들의 주체적인 목소리
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레
즈비언리즘, 포르노그래피, 영화에서 재
현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신아성의 성
예화 등 현사회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정
점을 다루면서 이를 여성주의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성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이슈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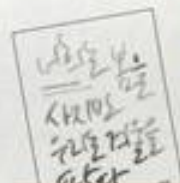
경계 없는 페미니즘
-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이은의 /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

〈경계 없는 페미니즘〉은 제 1세계 페미
니즘의 제 3세계 여성들에 대한 타자화
된 시선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즘의 탈식
민화를 주장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탈식민화를 주장하면
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
의에 대한 투쟁과 다양한 페미니즘 운동
을 연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저자가
다양한 공동체에서 느끼고 배웠던 경험
들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의 연대와 투쟁
의 희망을 전하는 책.



**대한민국은
군대다**
권인숙 / 창년사

〈대한민국은 군대다〉는 1980년대 학생
운동과 징병제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내면화된 군사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 등, 논란이 계
속되고 있는 이슈들을 여성주의적 시각
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의 배경
과 양상으로서 '군사화'를 설명하고 있
다. 한국 사회의 강한 국가주의 아래서
내면화된 것이 바로 '일상의 군사화'의
문제이며, 이렇게 침묵해왔던 일상의 억
압구조들이 위계질서, 집단주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 형성된 폭력적 구조로 나타
난다고 분석한다.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글쓰기 프로젝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실행 / 상인

매매춘(賣買春), 봄을 사고 팔다? 성매
매가 '봄'이라니, 그녀들이 말한다. 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살림은 부산의 '대
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근방에
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 책은 그 곳에서 탈성매매를 한 10여
명의 여성들이 글쓰기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제로부터 마
음을 일깨우게 만드는 이 책은, 읽는 내
내 언니들의 이야기에 꼭 빠지게 만든다.
너무나 아프기도, 편하기도, 공감하고 지
지를 보내고 싶기도 한 그녀들의 글은
다른 누구의 입을 통하지 않은, 있는 그
대로의 여성들 한명 한명의 것인자라 그
자체로도 너무나 소중한 책.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김창엽 / 상인

이 책은 장애와 차별,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여성과 장애, 네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장애에서 필자들은 자신의 위
치에서 장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
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특히 4
부 '여성'과 장애에서는 장애인 중에도
더욱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장애여성
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정상과 비
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대
의 '정상성'에 대해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는 책.



Is it a choice?
에릭 마커스
/ 박영출판사

이상장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갖는
편견을 문답 형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하
는 책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성에 중
심적 고정관념을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
한다. 연세대학교 이반 공동체 Come
Together에서 2000년도에 번역하고,
2006년도에 커밍아웃과 가족 등 각각의
장마다 미국과 다른 한국의 동성애자들
의 현재에 대하여 새로 썼다.

나, 성폭력의 기억과 마주하다.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문득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 이런 무슨 기억일까, 꿈에서 본 건가? 아니면 내가 겪은 경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나의 뇌리를 스칠 때면 나는 순간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곤 했다. 그렇게, 그렇게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무어라 딱히 명명할 수 없는 기억을 내 머릿속 한 편에 두고, 어느덧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 기억은 6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단지 내가 잊고 싶은 기억이라는 것 밖에는. 대학 생이 된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나는 여성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막연한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성주의자 친구들을 만났고, 그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을 키워갔다.

성폭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예전부터 문득문득 생각났던 그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버렸던 그 기억을 오늘은 왠지 붙잡아야 할 것만 같았다. 머리를 부여잡고 그 기억을 끄집으려 부단히 애를 썼다. 어떤 여자아이와 한 아저씨, 어둡고 비좁은 공간, 하나 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날 나는 세미나를 하면서 나누었던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들과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을 서로 짝지으면서, 그동안 잊혀져 왔고 스스로 모른 척 해왔던 나의 경험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그렇다. 내가 갖고 있던 그 기억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고, 그것은 성폭력이었다. 나는 나를 괴롭혀 왔던 그 기억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내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경험을 설명할 언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힘이 되었다. 언어를 갖게 된 것, 그것은 내가 성폭력의 경험과 대면하여 눈을 마주친 첫 경험이었다.

성폭력의 경험을 내가 살아온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은 생존자 말하기 워크숍을 통해서였다. 지난 5월 '반성폭력 문화'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생존자 말하기 워크숍을 꾸렸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주면서, 힘을 주고받고 서로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말할 준비를 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부분부분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

다. 묻혀있던 기억을 수면 위로 건져내면서, 나는 힘들고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좋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집중해서 생각할수록 잊고 있던 당시의 기억이라든지, 상황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가해자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어린 나의 모습이 자꾸만 내 눈앞에 어른거릴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꾸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감이 더해지고, '내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을 거야'라고 스스로 단정 지었다.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자책 때문에 점점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자신 없어졌고,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드디어 워크숍 당일이 되었다. 나를 비롯한 생존자 친구들은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의 경험을 소리 내어 말했다.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 내 입을 열어 말하는, 게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너는 아무 잘못 없어"라는,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경험을 끄집어내어 나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들었을 때, 당시 느낀 따뜻한 감정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행복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 뇌리에 새기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생존자 말하기 워크숍 이후, 나는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소 편해졌다. 답

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도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은 내 상처가 눈 녹듯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하기가 완벽한 치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들을 극복하고 나 스스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내 몫이겠지.

이제 나의 경험을 더욱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아직도 묻혀 있는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계획이다. 후에 가해자에게 찾아가 내가 겪은 경험을 내 입으로 또박또박 말하고 정당하게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좀 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효과적일까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만약 내가 여성주의를 몰랐다면, 그 기억을 지금의 상태까지 떠올릴 수 있었을까. 기억을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스스로를 긍정하며 자기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내안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내안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 서로의 치유를 도와주고 함께 공감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성폭력의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내가 여성주의자로 정체화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이다.

by_ 코알

나를 봐, 나는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너, 총여나?

막 총여학생회 활동을 시작했거나, 그저 총여학생회실에 종종 드나들기만 하더라도 주변 인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너, 총여나?”

주변 남성들로부터의 이 간단한 질문이 단순한 '궁금함'의 낯선 스마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언니들도, 지금의 나도, 나의 동지들도 모두가 알고 있을 터. 이유가 딱히 없는 불쾌함과 거부감, “나 말로만 들으면 바로 그 꼴페미였잖아!” 라는, 당혹감 내지는 신기함이 증폭되어 튀어나온 한 마디가 바로 “너, 총여나?” 라는 질문인 것이다. 뭘가 못마땅하다는 그들의 뼈대한 표정과 마주하는 일, 그리고 ‘꼴페미’라는 ‘혐’의 속에서 나 자신을 ‘커밍아웃’ 하는 일은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만, 갑자기 새로운 궁금종이 밀려온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우월주의자’라는 주장부터 ‘페미들이 조러를 생산에 반대했다’라는 유머러스하기 그지없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술한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는 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알일이 상대하느니 ‘차라리 이 닥고 잠이나 더 자자’는 나름의 생활 수칙을, 이제는 그들의 사고에 대한 궁금종이 입도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며 ‘공공의 적’으로서의 ‘페미니스트’를 창조해내고, 분노를 투사함으로써 동시에 자기만족적 쾌락을 느끼는 그 요한 행위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너, 총여나?” 라는 질문에 씩 웃으며 도전적으로 아뢰려는 나의 눈빛에 당황하는 그들의 표정을 볼 때, 어쩌면 페미니스트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혐오할 적’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남성 주체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두려움, 한번도 도전받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았을 때의 당혹감, 그럼으로써 훼손된 남성집단의 자존심, (그들의 용어를 빌려) ‘꼴페미’라는 존재에 대한 집단적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아닐까. 요즘엔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초중고 여학생들이 남학생의 성적보다 우수해도,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어도, 이혼율이 높아져도, 그들은 이 모든 가부장제의 생체기들을 그녀들의 탓, ‘꼴페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사유하지 않음, 그것이 곧 폭력이다

대학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불행히도 페미니즘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그것들을 부풀려놓는 말, 말, 말들이다. 가부장제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대학이라는 공간에 무언가 ‘지식의 전당’ 따위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말들은 그다지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총여학생회에 남학생 휴게실 없다고 욕하는 작태가, 마치 여자도 군대 보내라고 (국방부가 아니라) 여성 가족부에 항의하는 번지수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현상과 다를 것이 뭐한 말인가. 언젠가 학내 대표자들이 모두 모인 회의 자리에서, 이성에중심주

‘꼴페미’에 관한 그들의 몇 가지 착각

의 조항을 포함한 자치규약 개정안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동성애를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지난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의는 종결되었다. 회의를 마친 후 한 학생회 간부가 나에게 했던 말은 ‘좀 더 부드럽게 설득할 수 없었느냐’라는 요구였다. 좀 더 부드럽게 설렘했을 때, 더욱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의 친절한 ‘배려’는, 그러나 단순히 말투나 화법에 대한 권고 사항이라기보다는, 언제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남성 사회의 전형적인 요구 중 하나일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공격적이고 파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파괴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직설적인 목소리’라고 그들은 쉽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페미니즘은 남성 사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정작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공존’을 꾀고 있는 것은 수 천년동안 지속된 가부장제지, 이제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직설적인 목소리가 아니다. 그의 충고대로 내가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시다’ 따위의 말들을 대중에게 호소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억압을 구정창 늘어놓을 때, 결국 가부장제 사회의 범주 밖에 위치한 자들의 목소리는 보편적 권력의 ‘시력’을 구하는, 언제까지나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자의 경험을 보편으로 믿어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경계 밖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이라 여겨지는 경계 밖의 것들을 사고할 것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당혹감을 느끼며, 언제나 갑갑이 날뛰는 ‘거친 꼴페미’들은 원래 다 저래, 라는 무책임한 비난 한마디로 모든 논의를 종료한다.

‘사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폭력’이라고 한 아렌트가 말했는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간단히 천명해 버릴 때,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비장애 이성애자 여성인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배제와 폭력들을, 스스로 더 이상 사유하지 않을 때, 나는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폭력의 행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순간순간 성찰하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 ‘수구 세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문제제기

인터넷에 떠도는 ‘페미 급수 열람표’, ‘수컷해방(!!)’과 안티페미니즘이라는 ‘남성주의(!!!)’ 모임까지, 스스로를 ‘동물’의 위치에 놓으면서까지 안티 페미니즘을 외치대는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일단 여기서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단적 분노를 여성 운동가들에게 토해내는 그들의 양상은, 좀 더 ‘우아하진’ 분별, 사회의 ‘진보’라 스스로를 칭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난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진보 남성”은 페미니즘이 사회의 총체적인 역할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한다고, 성과 불평등의 문제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계급문제는 사유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인터넷의 ‘남성주의’, 혹은 ‘남성 가족부 추진 모임’이나 좌파 지식인이나, 말투의 세련미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문제를 남성의 욕망대로 재현하고 싶은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인식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에, 인식 주체인 남성의 경험,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느끼는 억압만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모순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력 속에서 ‘근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전제로서의’ 계급 문제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은 도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남성 집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주체성을 상대화하는, 그럼으로써 ‘타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설정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꼴페미’다. 그래서, 뭐?

부산대 웹진 <월장>에 대한 예비 남성들의 집단적 테러, 매년 반복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성의 군복무 논란, 그리고 가까이에선 그들이 ‘총여’에 대해 말하는 온갖 소문들까지, 이른바 ‘꼴페미’에 대한 그들의 집단적 분노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거칠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아하게 대물림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더욱 급진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해, ‘당연하지 않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보편’이라고 여겨져 왔던 목소리를 상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페미니즘이 비단 젠더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하나의 시각일 수 있다는 도전의 가능성과 용기를 던져준다. 어느 순간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이 되어버린 공간 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마초들의 구린 농담에 조소를 던지는 것만으로 ‘너, 페미니?’라는 뼈대한 질문을 받는 착박함 속에서, ‘이 땅에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때로는 피로하기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글을 썼지만, 어쩌면 ‘꼴페미’에 관한 그들의 몇 가지 착각에 가장 손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할 것이다. 씩 한번 웃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래, 나 꼴페미다. 그래서, 뭐?”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by_ 아무도

월경결석제!

2007년 1학기, 정식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18대 총학생회에서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시작으로 <월경결석제>의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9월부터 학교 측과 시범운영과 관련해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4차례의 회의를 거쳐 10월 26일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

▲ 2006년 1~2월

18대 총학생회는 11월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학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생리결석제' 도입 요구안이 교육부청 요구안 중 하나로 의결되었습니다.

▲ 2006년 3월

총학생회에서는 월경결석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시행 방안을 묻기 위해,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886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시범 운영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생리결석제'라 부르던 명칭을 '월경결석제'로 바꾸었습니다.

▲ 2006년 4~5월

월경결석제의 홍보를 위해 월경결석제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와 시범운영 방안, 월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등을 담은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결석제>라는 이름의 자료집을 발간했고, 5월부터 교수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공문과 함께 자료집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집을 하내에 배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2006년 5월 말~6월 중순

총학생회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ysfem>)에서 결석제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달력의 날짜를 클릭하면 학생의 이름 등의 신상, 수업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인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번에 이틀까지 발급
- 다음 발급은 3주 이후부터 가능
- 한 학기에 최대 5일 발급

▲ 2006년 7월

총학생회 학대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청 요구안에 대한 총장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경결석제의 경우, "다음 학기에 시범운영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학교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 2006년 9월

학생 측 대표 3인(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과 학교 측 대표 4인(청해부처장, 모교공학과 교수, 교무처 수업지원부장, 교무처 수업지원과장)이 함께 참석해, 18대 총학생회와 43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안에 따라 월경결석제의 제도 도입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006년 10월

제 4차 회의에서 최종 결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은 '월경결석제' (학생대표 측의 안)와 '생리결석제' (학교대표 측의 안) 두 가지 안을 상정한다.
- '월경결석제' 제도를 2007년 1학기 전 대학 시범실시 후, 계속 실시 여부를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결석제는 한 학기 최대 5일, 한번에 2일까지, 다음 사용은 3주 후부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결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험 및 각종 평가 시 결석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결석제는 정보통신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사포탈에서 본인이 출력해 제출하도록 한다.

논의과정에서

1차 회의에서 18대 총학생회 측은 43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후 2차, 3차 회의를 거쳐 논의를 한 후 4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범운영을 약속한 상태였으며 학생대표 측의 명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월경결석제 시행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월경결석제가 남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연세대학교에 월경결석제가 생기면, 대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기업에서 연세대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생리휴가 쓸까봐 싫어하면 어쩌느냐'라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남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등하지 않은 조건이 전제된 상황에서, 전체 자제를 부정하며 무한정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이 문제에 관해 차이의 기제를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논리입니다. 정상성이 누구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월경은 일상적인 일임에도,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는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월경결석제나 생리휴가제도는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논리 앞에서 그들이 구획한 정상/비정상에 의해 그 정당성마저 부정당합니다. 이미 '편협'하게 설정된 경쟁 속에서 채단하는 시각에 따라, 그들에게는 '우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월경 관련 증상으로 인한 결석을 공인결석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월경통을 겪는 사람이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항상 가려져있던 일상인 '월경'에 대해 말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현실과 그 전체를 뒤집고 그와 맞물려 있는 여성 교육권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월경결석제는 단순히 여학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남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제도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월경을 더러운 것이라거나 비정상적이고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겨온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를 뒤집고 재구성해나가기 위해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에 대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월경? 생리?

18대 총학생회에서는 초기에 '생리결석제'라는 이름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3월 설문지 조사 이후부터 '월경결석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리'라는 단어가 '생리현상'에서 그대로 파온 단어이며 월경하는 날을 '그 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리'가 월경 자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

이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여성의 경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월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결제'의 경우 제도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사용한 것이었으나, 학교 측에서 '단제'로 결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석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주장, '결석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나 '월경'의 경우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월경결석제'와 '생리결석제'의 두 가지 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측 대표가 '생리'라는 단어를 주장한 근거는 첫째, 교육부나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경우 '생리'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며, 둘째, '월경'이라고 했을 때 남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단기 일 수 없는'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대표 측은 이 이유에 납득할 수 없었으며, 명확한 언어로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측과 학교 측의 전체 자체가 서로 달랐으며 학교 측 대표들의 '가부장적 가치관'의 공고함 아래 토론과 납득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랜 논의 끝에라도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은 모두 합의가 된 상황에서 명칭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해 제도 도입을 늦추는 것 보다는 두 가지 안을 상정해, 이후 교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실리적이겠다는 판단 아래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

월경결석제는 이전에 총학생회에서 시범운영을 하던 것과 달리, 학교 측에서 책임지고 공식적인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강사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학사포탈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되는 만큼 학교 본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들을 거쳐 총장의 서명까지 받고 나면, 정보통신처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고 2007년 1학기에는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www.yonsei.ac.kr/~ysfem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월경결석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경결석제 도입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총학생회는 정식으로까지 책임지고 논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결석제